



미래창조과학부

보 도 자 료

<http://www.msip.go.kr>

2015. 2. 16.(월) 조간(온라인 2. 13. 15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연구기획팀장 박성원(064-797-7020), 홍순학 연구사(064-797-7022)

한-미 우주전파재난 대응 협력체계 강화

- 국립전파연구원, 미국 해양대기청 DSCOVR 위성 수신 참여 -

□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(원장 최영진)은 미국 해양대기청(NOAA*)의 차세대 태양위험 감시위성(DSCOVR**) 데이터 수신을 위한 국제 공조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를 통해 우주전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태양활동으로 발생하는 무선통신, GPS, 전력, 위성 등 국내 인프라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여 재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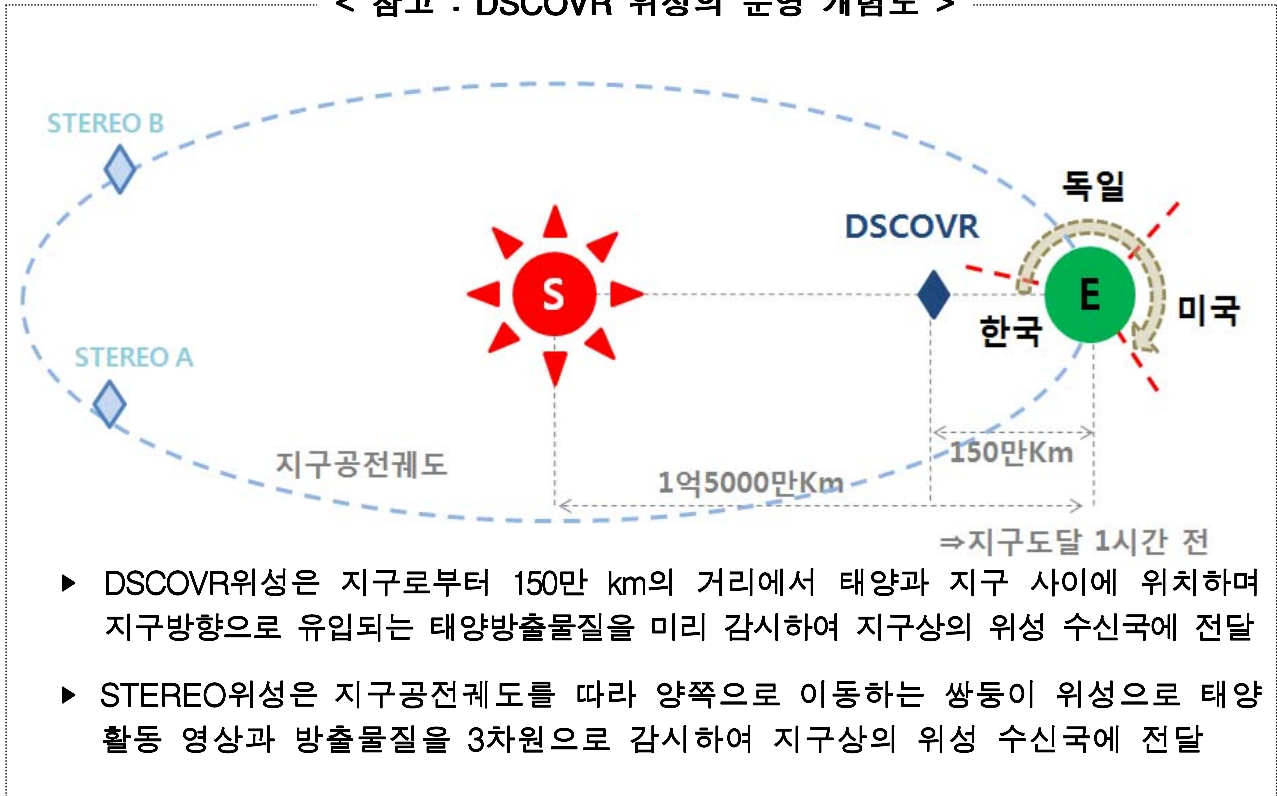
* NOAA :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, 美 해양대기청

** DSCOVR : 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, NOAA의 차세대 태양관측 위성('15.2.12 발사)

□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NOAA가 최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DSCOVR 위성 데이터를 추가하여 수신하는 내용으로 NOAA와의 기존 협력 양해각서(MoU)를 개정했다.

○ 이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(제주)에 DSCOVR 위성의 국내 수신국을 운용함으로써 미국, 독일 등이 함께 참여하는 24시간 공조 수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< 참고 : DSCOVR 위성의 운영 개념도 >



□ 국립전파연구원은 NOAA와의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보다 정밀도 높은 태양위험 감시위성 데이터의 수신 등 태양활동 감시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, 우주전파환경 관측기술과 예측모델 개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. 끝.